



7 창고천 학술탐사

고지도를 통해 본 창고천

박 용 범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I. 머리말

창고천[倉庫川, Changgocheon]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을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으로 한라산 남서쪽 사면 삼형제오름 일대에서 발원하여 감산리 해안으로 유입된다. 다른 명칭으로는 감산천(甘山川), 감산천(紺山川), 창천리천(倉川里川) 등으로도 불리운다.

하류의 안덕 계곡은 풍부한 생태자원과 절경으로 유명하다. 유로 연장은 23.35km이고, 유역 면적은 46.36km²이다.

문헌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대정)에는

‘감산천(甘山川)으로 표기되어 있고’, 『탐라지(耽羅志), 1653년』(대정)에는 ‘감산천(紺山川)’이라 표기되었으며, 대정현에서 동쪽으로 25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I. 고지도 개관

제주도 고지도에는 목장, 봉수, 연대, 과원, 촌점(동리), 연호(호구), 인구, 방호소, 오름, 각종 하천 등의 주요 정보가 담겨져 있다. 고지도에는 제작당시의 정보와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담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고지도 속에 그려진 창고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屏序)』

우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탐라지도병서』는 3단으로 구성된 제주도 전도(全圖)이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국방의 전진기지와 목마장으로서 중시되던 지역이어서 이에 따라 제주지도도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지도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기생화산(오름)들과 임수(林藪)의 모습이 음각으로 자세히 그려져 있고 촌락과 포구들은 양각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지도는 목판본으로 여러 차례 인쇄되면서 이후 제주지도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상단과 하단에 제주도의 지리적 상황을 기록하였는데 그 마지막에 ‘강희기축(康熙己丑)’이라는 간기명으로 인해 1709년 이규성(李奎成)이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도에서는 ‘감산촌(柑山村)’이라는 지명만 확인되고 있으며, 한라산 남서쪽에 위치한 ○○악에서부터 발원하는 하천으로 그려져 있다.



사진 1. 탐라지도병서

2.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중 「한라장축(漢拏莊囑)」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는 이형상 제주목사가 1702년 화공 김남길을 시켜 제작한 총 41장의 그림이다. 그림의 구성은 주요 진성과 방호소를 찾아서 순력을 하는 장면과 경로연, 연회 장면 등 제주도내 곳곳의 장면을 사실처럼 묘사하고 있어 제주시 연구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첫 장인 한라장축에서는 제주 주요지역 촌(村)과 리(里)는 마을 명칭만 간략히 적고 있는데, 한라산 남쪽에 위치한 발산(鉢山)밑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그려져 있고, 하천 명칭은 생략되었다. 하천 주변에 감산(紺山)이라는 지명이 확인된다.



사진 2. 한라장축

3. 『해동지도(海東地圖)』 중 제주도지도

『해동지도(海東地圖)』는 1750년(영조 26년)경에 제작된 전국 군현지도첩이다. 지도 앞면에 기록된 주기(註記)에 의하면, 지도 제작 당시에 제주목에는 목판으로 간행한 인본(印本) 2장이 있어, 두 종의 지도를 모두 수록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도는 당시 제주읍에 보관하던 목판본 지도 중 한 벌을 모사한 것인데, 지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1709년(숙종 35년)에 간행된 『탐라지도병서』를 모사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중산간 오름밑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세군데로 흘러 바다로 이어지는데 이중 가장 남쪽으로 흘러 감산촌(紺山村) 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 명칭이 창고천(倉庫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또 다른 지도에는 여전히 감산천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總地圖)』

우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제주고지도인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總地圖)』는 1770년대에 제작된 흑백필사본 지도이다.

이 지도에서는 감산촌 상류에 창고천촌이라는 명칭이 유독 눈에 들어온다. 창고천촌 옆으로 천(川)을 표기하고 있어 창고천으로 표기한 듯 하다. 상류는 한라산 존자암 밑에서 발원하여 중산간 왕이산(王伊山)¹ 부근에서 성천(星川:중문천의 별칭)으로 흐르는 지류가 먼저 갈라져 나가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사진 3. 해동지도 중 제주 삼현도

1 왕이산(王伊山): 이악(伊岳), 이둔이오름. 두 오름으로 되어 있으며, 주봉의 표고는 663m이다. 오름 자락 일대가 여러 마을의 공동목장지대이다. 안덕면 광평리 산3번지 일대이다.



사진 4. 해동지도 중 제주 삼현도-1



사진 5. 제주삼읍도총지도

5.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總圖)』 중 제주도지도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總圖)』 제3축에 포함된 제주도 지도는 윤곽이나 지형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인문학적인 내용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고내현(高內縣)·곽지현(郭支縣)·애월현(涯月縣) 등 고현(古縣)도 표시되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지도에서 표시되지 않았던 사찰과 암자, 교량 등이 표현되었다.

‘감산천교(甘山川橋)’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감산천으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하천이 발원하는 곳이 대정현성 아래쪽으로 그려지고 산방산이 대정현성 북동쪽에 그려진 것으로 보아 지도 자체의 사실성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사진 6. 조선강역총도 중 제주

6. 『전라남북도여지도(全羅南北道餘地圖)』 중 제주지도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라남북도여지도(全羅南北道餘地圖)』는 1700년대에 제작된 채색 필사본 고지도이다. 이 중 제주지도를 보면 눈에 띄는 점은 25개의 봉수를 햇불로서 위치를 표시하고 명칭까지 적어 놓았으며, 방호소는 큼지막하게 두 개의 큰 원으로 표기하였다. 멀리 한라산 아래 오름에서부터 발원하여 흐르는 하천이 과원(果園)과 감산촌을 지나 바다로 합쳐지도록 그려져 있다. 군데 군데 채색으로 칠해진 기와집이 지도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감산촌에도 한 채의 기와집이 표현되었다.



사진 7. 전라남북도여지도

7. 『고지도첩(古地圖帖)』 중 탐라전도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고지도첩(古地圖帖)』 또한 170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채색 필사본 지도이다. 이 지도에 그려진 탐라전도(耽羅全圖)에는 고려 시대에 있었던 행정명칭인 고김령현(古金岑縣), 고함덕현(古咸德縣), 고토산현(古兔山縣), 고정의현(古旌義縣) 등이 적혀 있으며, 만수사(萬壽寺), 문수사(文殊寺), 해륜사(海輪寺) 등의 사찰도 잘 표시되었다.

앞 서 설명한 『전라남북도여지도』에 보이는 하천과 감산천교(甘山川橋)가 확인된다.

8.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 『동여도(東輿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1861년(철종 12년)에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 간행한 22첩으로 구성된 절첩식(折疊式)지도이다.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12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22층을 만들고, 동서 80리 간격을 한면으로 했는데 두 면이 한 판으로 구성되어 각층의 판을 병풍식으로 접어 첩으로 만들었다. 초간본에 수록된 제주도 지도는 도로를 직선으로 표시하고, 10리마다 점을 찍어 거리와 지도의 축적을 표시해 놓아 지도상에서 지역간의 거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산천은 백록담 아래의 수행굴(修行窟)로부터 발원하여 당포(唐浦)까지 흐르는 긴 하천으로 그려져 있으며, 10소장의 하나인 제7소 좌측으로부터 지류가 합류되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이러한 그림은 김정호가 제작한 또 다른 지도인 『동여도(東輿圖)』²⁾에도 마찬가지로 모습으로 표현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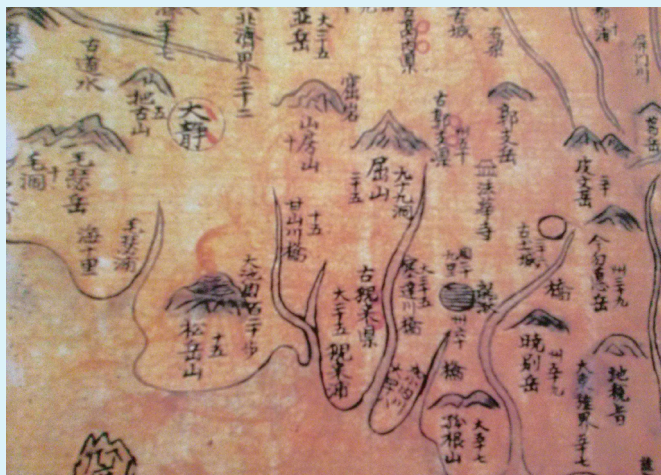


사진 8. 고지도첩 중 탐라도

2 동여도(東輿圖) :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전에 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축척 필사본 지도.

『대동여지도』처럼 22층의 절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현 양식도 유사한데, 목판본인 『대동여지도』와 달리 약 7천여 개의 지명이 더 수록되어 있음.



사진 9. 동여도



사진 10. 대동여지도



사진 11. 제주 삼읍전도

9.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중 대정군지도

1872년(고종 9년)에 전국 지도 제작의 일환으로 만든 제주도 지도인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는 외세의 침입을 겪은 조정의 필요에 의해 전국 각 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실상 파악을 위해 만들어 졌다. 제주도 지도는 특별히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도의 제작시기를 1895년 이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른 군현 지도와 달리 대정(大靜), 정의(旌義) 등의 고을이 현(縣)이 아닌 군(郡)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1895년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조선시대에 전라도에 속해 있었고 해방 이후 도제 실시와 함께 분리되었다. 이 지도에서 첫장인 ‘제주삼읍전도’가 제주도 전체 지도의 역할을 하며, ‘제주목’, ‘정의군’, ‘대정군’ 삼읍의 지도가 별도로 있다. 이 지도들은 앞 시기의 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으나 이전에 지도에 비하여 지역을 구분하여 제작되었기에 한층 정확한 지도이다. ‘대정군’ 지도에서는 존자암 밑에서 발원하여 창천리, 감산리, 화순리로 흐르는 하천을 범천(犯川)으로 표기하고 있다.

III. 맺음말

앞장에서 살펴 본 고지도 및 문헌에 수록된 하천의 명칭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고지도 · 문헌 명칭 비교

지 도(문 헌)	제작연대	마을명	하천명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감산천
이원진 『탐라지』	1653		감산천
탐라지도병서	1709	감산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	1702	감산	
조선강역총도	1700년대 전반		감산천교
전라남북여지도의 제주지도	1700년대	감산촌	
고지도첩의 탐라전도	1700년대		감산천교
해동지도의 제주지도	1750경	감산촌	창고천
제주삼읍도총지도	1770경	창고천촌, 감산촌	창고천

지 도(문 헌)	제작연대	마을명	하천명
대동여지도·동여도의 제주지도	1861 1800년대 후반		감산천
제주삼읍전도	1895	창천리, 감산리, 화순리	범천
『증보탐라지』	1953		창고천,만천 (안덕천)

창고천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창고가 있었던 사실’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창고천을 경계로 동쪽에는 창천(倉川), 서쪽에는 감산(柑山) 마을이 있으므로, 이 하천은 마을의 경계로도 이용된다.

최초에 창고천을 언급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감산천은 있어도 창고천은 없다.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해동지도』에서 비로소 창고천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며,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감산촌’과 함께 ‘창고천촌’이라는 전혀 새로운 마을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창고천촌’에서 후대에 ‘고(庫)’자가 빠져서 지금의 창천리로 변모된 듯 하지만 이후 제작된 지도인 『대동여지도』, 『동여도』에서는 ‘창고천촌’이란 명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창고천이라는 지명은 창천마을 인근에 창고시설이 지어진 18세기 중반경에 잠시 사용되었던 명칭이며, 창고가 사라진 이후에는 다시 감산천이라는 명칭으로 환원되었음이 고지도상에서 확인된다. 창고천 명칭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감산, 창천, 화순이 마을 별로 분화된 근래에 들어서이다.

| 참고문헌 |

- 국토지리정보원, 『한국 지명 유래집-전라·제주편』, 국토지리원, 201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 옛지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 오상학,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통천문화사, 2005.
- 홍순만, 『역주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5.